

지식과 권력 그리고 지식인: 집단지성 시대 지식인의 새로운 상을 위하여*

홍태영 | 국방대학교

| 논문요약 |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권력이 지배하는 현 시점에서 근대적 지식인의 죽음이 선언되고 있다. 이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인의 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논의를 좀 더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성사적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지식인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철학적, 사회학적 논의들이다. 이 글은 사이버 시대 혹은 정보화 시대 등으로 지칭되는 최근의 새로운 사회 속에서 지식의 의미변화 및 지식과 권력관계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역학 속에서 지식인의 새로운 의미규정 및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지식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지식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역사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동시에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현 시점에서 지식과 권력의 관계의 새로운 특징과 그에 따른 현재의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들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지식/권력, 지식인, 집단지성, 네트워크 권력.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32-B00007).

I. ‘지식인의 죽음’

지난 2008년 모 일간지에서 민주화 2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사회 지식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새롭게 점검한 적이 있었다. 전반적인 결론은 ‘지식인의 죽음’에 대한 선언과 지식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었다(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08). 한국사회에서 ‘지식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지식인이 고유한 사명이라고 여겨졌던 비판적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오랫동안 지식인들이 스스로 간직했던 시대적 소명의식 혹은 도덕적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세계사적으로 냉전질서의 종식이 맞물리면서 기존 지식인들이 공유해왔던 거대담론이 붕괴되고 그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등은 ‘인문학의 위기’, ‘대학의 위기’를 가져왔고, 한국사회 지적 생산구조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다. 한때, ‘신지식인’이라는 이름은 비판정신이 아니라 잉여를 창출하는 지식의 효용성과 양적인 문제로 지식인을 판별하는 사태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지식인의 죽음’은 한국사회에 한정되지 않는다. 근대성의 거대담론을 비판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추구하였던 리오타르 역시 거대담론의 유효성 상실과 함께 근대적 지식인의 죽음을 선언하였다(Lyotard 1993). 20세기에 지식인들은 거대담론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래와 함께 거대담론은 소멸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지식인 역시 그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레기 드브레는 20세기 말의 지식인에 대한 거침없는 독설을 내뿜는다: “최근의 지식인은 ...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독점하지만,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알량한 지식으로 근근하게 살아가면서도 거북살스럽게 귀족이란 호칭을 달고 싶어하는 겉모습만 귀족인 사람들이다”(Debray 2001). 드브레가 20세기 말의 지식인들에게 비판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층민과 단절하고 폐쇄적인 특권계급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 것 중의 하나는 미디어의 변화와 발달이다. 그들은 정확하고 정교한 글보다는 자신의 선전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의 문화와 커뮤니

케이션의 복합체라고 비판받는다.

‘엔텔렉튀엘(Intellectuels)’ 흔히 지식인으로 번역되는 이 개념 자체가 프랑스의 독특한 정치적 상황에서 등장하였고, 그것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입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동구나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라는 개념이나 영미식의 ‘전문가집단’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지식인’ 개념과 그것을 둘러싼 논의는 상대적으로 프랑스 학계에서 활발하였다.¹⁾ 하지만 냉전 종식과 신자유주의의 확대 속에서 80년대 이후 프랑스의 지식인들 역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고 또한 요구받는다.

한국 사회의 경우 근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동에서 지식인의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에 지식인에 대한 담론은 많이 존재해 왔다. 4.19혁명과 5.16 쿠데타 이후 참여지식인론과 함께 비판적 지식인론 및 근대화 인텔리겐차론 등이 존재하였다. 이후 민중적 지식인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 등의 이름으로 80-90년대로 이어진다. 지식인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서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 측면이 많다(강수택 2001; 김호기 2002; 임현진 2005; 김동춘 2006; 조희연 2003; 노영기 외 2004; 윤평중 2008). 이 연구들은 지식인의 역할과 상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는 필자 자신의 정치적 입장 속에서 지식인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거나 지식인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식 자체 혹은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 근대적 학문체계의 성립과 서구학문의 수입과정 그리고 그곳에 작동하는 권력의 역할 및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이기준 1983; 김진균 외 1997;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2004; 전상숙 2004; 방기중 2005). 이러한 지식인 및 지식/권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최근 지식의 의미변화와 관련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과학문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김상배 2006; 2008; 최재천 외 2007; 홍성욱

1) 19세기 말 지식인의 탄생을 둘러싼 지성사적 연구는 Prochasson(1993; 1997; 1999), Charle(1990), Winock(2008)의 연구는 광범위하고 또한 풍부한 문헌연구를 통해 프랑스 지식인의 지성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외에도 중세의 지식인에 대한 Le Goff(1998)의 연구, 계몽주의 시기 연구(Darnton 2003), 19세기 전반기의 연구(Dhombres 1989) 등은 지식인 이전의 지식인이라는 의미에서 지식인의 전사(前史)로서 의미있는 연구작업들이 존재한다.

외 2001). 그러한 연구들은 사이버공간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현상의 다양화 등 기존 지식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학문 대상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학문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대 이후 지식인이란 무엇이며, 사회는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였는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인의 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논의를 좀 더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성사적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지식인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철학적, 사회학적 논의들이다. 특히 이 글은 사이버 시대 혹은 정보화 시대 등으로 지칭되는 최근의 사회 속에서 지식의 의미변화 및 지식과 권력의 관계 변화 그리고 그러한 역학 속에서 지식인의 새로운 역할과 의미 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지식인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한 논의는 결국 지식과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구와 한반도에서 주요하게는 근대 이후 지식과 권력의 관계변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지식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이른바 ‘집단 지성’의 시대에 지식과 권력 관계의 새로운 특징과 그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II. 지식/권력의 역사 그리고 지식인

근대적 학문체계의 성립과 전환 속에서 지식/권력 관계의 변화

푸코는 자신의 『말과 사물』에서 ‘에피스테메’의 변화를 통해 서구의 역사를 서술한다. 에피스테메는 “한 주어진 시대에 있어 인식론적 구조물들을, 과학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화된 체계들을 발생시키는 담론적 실천들을 묶어줄 수 있는 관계들의 집합”을 뜻한다(Foucault 1992, 266). 에피스테메는 사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해주는 ‘인식의 질서’이다. 푸코는 이러한 에피스테메의 분석을 통해 서구의 역사를 르네상스 시대, 고전주의 시대, 근대로 구분한다. 그리고 푸코의 작업은 이러한 담론의 형성을 가져오는 비담론적 쟁점, 결국 권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식과 권력의 결합의 실재들을 분석해 낸다. 푸코는 19세기 국가 권력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삶을 관리하는 권력 즉 생명관리권력(bio-pouvoir)이라는 개념을 정교화한다. 그리고 그 권력과 결합하는 다양한 ‘지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권력의 변화를 추적한다.²⁾ 푸코는 권력/지식의 개념쌍을 통하여 근대 정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식/권력’의 개념은 일정한 결합의 형태를 띠었고, 그것의 균열 속에서 ‘지식인’의 특정한 역할이 주어진다. 이 절에서는 서양과 한국에서 지식과 권력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그러한 특수한 관계 설정 속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위상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양에서 지식(인)과 권력

지식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개념은 분명 제한된 의미 혹은 특정한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스 시기에 시인 혹은 철학자라 불리는 사람들, 중세에는 성직자 또는 사제들이 존재하였고, 그들을 지식인의 한 부류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Gingras et als 2000; Loraux et Miralles 1998). 중세사가인 르 고프는 아벨라르로 대표되는 중세의 비판적 지식인 집단을 구별해 낸다(Le Goff 1998). 중세 기독교의 서양에서 지식은 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신학을 독점하고 있던 집단인 중세시대의 수도원의 사제들이 권력을 행사하였던 전문가 집단이었다. 11세기말 12세기 초까지 수도원에는 다양한 재능과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 항상 존재하였다. 하지만 12세기 중엽부터 이를 대체하는 대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학

2) 푸코는 삶을 관리하는 권력의 출현 그리고 인구라는 주체-객체가 부의 분석에 도입되어 경제적 성찰과 실천의 영역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정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지식의 영역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Foucault 2011, 124-125). 푸코는 근대 권력의 작동과 지식의 변화가 상호구조화되어 있음을 본다. 근대 이래 권력은 법학, 병리정치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등 지배적인 지식의 형태들과 결합하여 상이한 작동방식을 변형시켜 왔다(홍태영 2012). 푸코의 ‘통치성’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개념이었다.

문적 사고의 기회가 바깥 세계에서 크게 증가하였다(Brooke 2005). 지식의 보관 소 역할이 수도원에서 대학으로 이전되는 것은 교권에서 세속권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또한 대학은 교권과 세속적 왕권 사이에서 권력을 저울질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 가기 시작하였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지식 소비가 서서히 대중화되고 근대적 개인이 탄생한다. 또한 교육기관의 확대 역시 지식의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민주화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18세기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편집한 『백과전서*Encyclopédie*』는 근대 계몽주의 백과사전의 시작이자 전형이었다. 『백과전서』의 분류체계는 근대의 새로운 방식에 의한 분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고, 근대 이성의 권력의 표현이자 행사였다. 푸코의 말대로 언표작용의 기저에는 권력이 작동하고 있었다(Foucault 1992). 담론 안에서 언표들은 “담론적 실천을 특정화하는 규칙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된다. 새로운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이성에 기반한 새로운 담론의 체계들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이 『백과전서』의 저자들이 지향했던 목표였으며, 그것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백과전서』는 이성에 기반한 근대성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었으며, 또한 활자시대의 책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지평을 보여준 것이었다.

계몽주의 시기 지식인은 『백과전서』에 따르면 ‘시야가 좁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깊이 파고 들지는 못하더라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간주되었다(Burke 2006, 58에서 재인용). 이들은 대학 혹은 아카데미와 같은 학술적 단체나 모임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해가면서 접촉하고 소통하였다. 하지만 곧바로 학문 세계는 대학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 체계화되고 ‘연구’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서서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지식 공화국(République des lettres)’이라는 말은 유럽에서 학자들의 국제적인 공동체를 가리키던 말로써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Roche 1989). 교육기관들이 신설, 확대되고, 또한 고등교육기관들은 순수하게 전문적인 직업적 정향을 가졌고,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관들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학자(savants)’라는 직업을 갖는 이들을 탄생시켰다(Dhombres 1989, 807).

하지만 ‘지식인’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발생한 드레퓌스사건(Affaire Dreyfus)과 함께이

다. ‘나는 고발한다(’accuse)’라는 글을 통해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에밀 졸라(E. Zola)가 그 출발점에 있었다. 드레퓌스 사건에서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다양한 지식인의 장과 개인적 활동들은 집합적 의견의 연합으로 나아가고,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이데올로기적·지리적·사회적 근접성에 의해 연대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홍태영 2008, 282-288). 지식인이라는 집단은 “공화국이 내건 가치, 즉 재능 우선주의와 엘리트의 실재적 재생산의 법칙 사이의 모순”이며, 이 모순이 드레퓌스 사건이라는 역사적 위기에서 탄생할 수 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지식인들은 권력의 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부여하였다(Charle 1990, 13). 지식인들은 권력을 요구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요구했다. 엘리트라는 새로운 이상은 엘리트의 과도한 생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하강의 길에 있는 즉, 퇴락하는 엘리트들 간의 분열의 확대를 수반하였다. 권력의 장에서 멀어진 지식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개입을 통해 ‘지식인’을 만들어 냈다. 민주주의의 성립이라는 3공화국의 엘리트 충원 과정에서 자의적·타의적으로 권력의 장에서 배제된 집단이 자기 선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옹호하고 자신의 권력을 형성하면서 ‘지식인’을 탄생시킨 것이다.

지식인에 대한 인식과 정의들은 당시의 시대적 맥락 특히 ‘지식’ 및 ‘권력’ 개념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다. 19세기 동안 대학 내에는 학과들(disciplines)에 의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중세 이래 존재하였던 철학, 문학, 법학 이외에 경제학, 지리학, 정치학 등이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19세기 말에 이르면,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등의 사회과학들이 체계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학문분류가 이루어진 것은 다양한 논리, 특히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인식과 그 해결의 방식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이다. 19세기 경제학자들의 자유무역주의 주장이나 뒤르카임과 같은 사회학자들의 비판 등은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틀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개입의 방식에 있어서도 구별이 뚜렷하였다. 드레퓌스 사건 당시 드레퓌스 진영에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면, 반드레퓌스 진영에는 경제학, 법학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세기말부터 지식과 학문 체계의 확립은 이전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대학을 통한 근대적 학문 체계의 성립이었다. 즉 대학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하고 대학에 학과들이 제도화되고 학문적으로도 자신들의 학회나

학술지 등을 통해 지식체계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부터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서서히 문호가 개방되면서 대중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는 것에도 맞물린다. 그것은 대중적인 고등교육을 통해 지식을 지닌 집단이 광범위하게 형성된다는 것이며, 그들의 분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이야기 하는 엘리트의 형성시점이며, 그것은 근대적 의미의 지식인의 등장과 동시적이다.

지식인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했던 칼 만하임은 지식인이란 다양한 관점들을 역동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즉 종합의 최상의 담지자일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하였다(Coser 1990). 반면에 그람시는 유기적 지식인이라는 유기적으로 속한 계급의 관념과 갈망을 대변하는 당파주의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20세기 중반 서구의 근대적 지식인의 상징이었던 사르트르는 만하임의 보편적 지식인과 그람시의 당파적 지식인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사르트르는 지식인은 보편적 지식 및 기술의 추구하고 지배계급이 요구하는 당파적 이해관심 사이의 모순을 경험한다고 본다. 사르트르의 지식인은 철저히 모순으로부터 출발하여 보편성을 향해 부단히 나아가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는 소외계급이 필요로 하는 “계급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이 지식인에게 주어져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계몽적 지식인상을 보여주었다(Sartre 2007). 사르트르는 ‘철학이 지식의 체계적 총체화로 인식된다’는 의미에서 철학을 한 마지막 철학자이며, 대학이라는 장소에서 벗어나있던 ‘마지막 철학자’였다(Renaut 1993). 그리고 20세기말 이후 지식인의 위치와 역할은 새로운 전기를 맞기 시작하였다.

(2) 한반도의 지식(인)과 권력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학문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권력의 변환은 왕조의 변화로 나타났다. 고려왕조의 몰락과 조선의 등장은 정신세계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였다. 3세기 무렵 불교가 유입되어 1000년 동안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지배하였고, 14세기 중반 성리학의 혁명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다. ‘신앙’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신앙적 인간으로부터 사유하는 인간으로 사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리학은 세계 내의 질서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인간 활동의 극단적 형태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계의 원리를 탐구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하려는 것이었다(김영수 2006, 679). 푸코식의 표현을 빌자면, 에피스테메의 전환이 발생한 것이다. 조선 시대 성리학에서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분리는 유교적 지식인들의 정치에의 개입과 독자적인 역할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장현근 2012; Bol 2010). 도덕권력은 현실 정치권력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으며 항상 개입의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 시대 실학의 등장, 개항에 따른 서구학문의 급속한 유입 등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지식/권력의 변동의 계기들이다. 실학자들은 기존 성리학의 도덕 권력의 역할보다는 실질적인 삶을 위한 학문을 강조하였고, 특정한 사상을 고집하지 않고 두루 접하였고 잡학(雜學)과 박학(博學)의 풍모를 띠면서 제자백가학, 천문, 지리, 율력, 산술 등의 영역까지 천착하였다(정호훈 2004, 119-120). 실학자들은 성리학의 중심주제인 사변적 ‘천리(天理)’에서 이탈하여 공맹(孔孟) 유학의 사회, 정치, 경제, 교육의 보다 구체적인 인간과 현실의 개조를 문제삼았다(권인호 2010, 25). 그러한 의미에서 실학자에게 ‘지식’이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었다. 조선인들이 서구의 근대과학 기술을 접하기 시작한 것은 실학자와 함께였다. 하지만 아직은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예외적으로 정약용의 기증기가 서양 기술서를 참고하여 제작되기도 하였다. 서구 근대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선의 지배층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본 방문 결과로 볼 수 있다(박성래 1998, 26).

서구 학문의 수입과 정착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근대성의 형성과 맞물린다. 한국에서 근대성의 형성과정은 외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함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식/권력 관계 역시 영향을 받았다. 서구에서 유입된 근대적 지식에 기반하여 새로운 권력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 지식에 기반한 기존의 권력집단은 새롭게 부상하는 권력에 의해 ‘낡은’ 지식, ‘낡은’ 집단으로 간주되었다(권영민 1999). 전통과 서구문명은 ‘낡은 것/새로운 것’의 구도와 함께 선/악의 구도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시기 지식인은 새로운 지식에 기반하여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편입하거나 비판적 지식인 즉 독

립운동에 편입하거나, 많은 수는 병약한 인텔리의 모습을 띠었다. 자생적 근대화의 실패, 독립적인 국민국가 건설의 실패 등은 조선의 지식인의 특수성을 구성하였다.

19세기말 조선이 서구 열강들과 접하기 시작하면서 중화질서에서 만국공법의 질서라는 새로운 국제관계에 편입하는 시점은 ‘문명화된 서구’와 접하면서부터였다. 서구는 근대적인 학문들의 체계화 속에서 국가와 시장,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그러한 질서를 세계라는 새로운 틀에도 적용시키면서 제국주의/식민지 질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한 질서에 재빠르게 편입하면서 ‘적응’한 일본과 달리 조선의 출범은 더디기만 하였다. 물론 개화파 지식인들은 자강을 위해 서구 과학기술의 빠른 도입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박은식은 서우학회(西友學會) 등 애국계몽단체를 창설하고 ‘실학’ 교육을 주장하였다(박성래 1998, 36). 실학은 농학, 의학, 화학 등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상학, 철학, 법률학 등을 포함한 것이었다. 서양과학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 태도는 1900년대 조선 지식인을 사로잡은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과 결합하면서 더욱 강화된다.³⁾ 일종의 과학지상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한다(박성래 1998).⁴⁾

일제 시기에 교육은 일본인들에 의해 조선인들의 교육은 극히 제한적으로, 즉 초급적인 기술인력의 양성에 한정되었다. ‘보통학교’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소-중-고-대라는 단계적인 인력 양성이 아니라 ‘보통’학교만을 통한 식민지 하급인력의 양성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1905년부터 시작되었던

3) 최초로 조선의 지식인이 사회진화론을 접한 것은 일본 관비유학시절이던 유길준이었다고 본다(김학준 2000; 전복희 1996).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것은 량치차오(梁啟超)의 글과 가토 히로유키 등 일본논객들의 글을 통해 1900년대 진화사상은 확산된다(박노자 2005).

4) 1917년 이광수는 『무정』의 클라이맥스에서 “과학, 과학”이라고 혼자 부르짖는다. 그리고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을 주어야 하겠어요. 지식을 주어야 하겠어요.”라고 외친다. 이러한 과학지상주의는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박정희의 개발 독재 시대-홍성태는 박정희 체계의 특징으로 국가주의, 성장주의, 과학주의의 결합을 본다(홍성태 2007, 275)-를 거쳐 황우석 사태를 낳은 ‘과학기술사회’의 전망이 그것이다. 황우석 사태는 과학을 신비화하고 절대화하는 상황에서 더딘 민주화가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학교설립운동은 주요하게 문명교육과 실업교육을 강조하면서 과학교육을 정착시켰다. 192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운동은 대학설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22년부터 조선인의 고등교육을 조선인의 힘으로 하자는 목적으로 이학부, 농학부, 의학부를 포함하는 민립대학운동 건설운동으로 추진되었다. 이 운동은 당시 과학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출현과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1880년대 신기한 신지식과 교양지식으로 소개되던 과학은 1920년대가 되면 조선의 장래를 결정하는 물질적 힘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박진희 2010, 55). 지식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은 곧 권력투쟁을 의미하였다.

일제 지배 시기 조선인의 지식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해석을 둘러싸고도 현재까지 많은 갈등이 있다.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 특히 무한 삼진 함락과 이후 유럽에서 파리 함락이 이어지면서 지식인들의 친일 협력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김재용 2004, 24). 일본제국주의 지배에 살아가는 상황 그리고 그 시간이 한 세대를 넘는 35년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지배와 저항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해소될 수 없는 넓은 회색시대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식민지 지식인의 비애를 이해하려는 시각도 있다(윤해동 2003).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지식인의 친일 협력이 많은 경우 자발적이었으며, 친일의 논리를 충분히 내면화하여 협력하였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김재용 2004). 서구의 예나 한반도의 역사의 경우에도 권력과 지식은 잘 어울려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어느 편에서나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어떠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 의지의 문제이다. 더구나 공동체에서 가장 중심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두 개의 축이라는 지식과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그러하다.

해방 이후 남한의 독자적인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지식의 새로운 재편과 확립과정은 상당 부분 미국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적 학문체계의 성립과 지식 개념 그리고 권력이 중층적으로 결합하여 확립된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문제는 한국의 새로운 근대화 문제와 동시에 제기되었고, 근대화의 과제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리고 또다른 주요한 과제는 민주화였다. 근대화와 민주주의 성립이 한국의 지식인에게 주어진 과제였으며, 그에 대한 판단 속에서 지식인들은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였다.

1950년대 후반 10여만 명이던 대학생 수는 1960년에 38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의 양적 성장이 1960년대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 것은 분명하다(임대식 1998, 139-140). 하지만 대학생들은 그들이 받은 서구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이승만 독재라는 현실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고, 광범위한 실업상태로 계층상승의 욕구의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정용욱 2004, 162). 4·19 혁명의 시점은 일견 프랑스 드레퓌스 사건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대학교육의 팽창에 따른 엘리트로의 상승과 좌절 그리고 그에 따른 분화가 지식인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낸 것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계급의 분화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 것이다.

5·16쿠데타에 대해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홍석률 1999, 197-198). 5·16쿠데타와 함께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가 변화하였다. 5·16 쿠데타 세력들은 구정치인들을 권력에서 배제하였고, 국정수행상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은 학계인사나 전문행정관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5·16쿠데타 이후 나타나는 이러한 권력과 지식의 결합현상은 군사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된 ‘근대화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정용욱 2004, 172).⁵⁾ 군사정권에 의해 경제개발이 추진되면서 권력과 지식인의 결합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박정희는 “비판일변도의 태도를 지양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지식인”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박노자 2005, 39).

물론 송진호의 경우 현대지식은 “비전없는 지식(knowledge without vision)”이며 “5·16 이후 지식의 역할은 지식의 철저한 기술학화”가 되었음을 비판하기도 하였다(정용욱 2004, 176에서 재인용).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5) 당시 근대화론의 선두주자는 로스토(W. Rostow)였다. 그의 저서『경제성장의 단계들』에서는 로스토는 “전통사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엘리트와 리더십이 등장해야 하며 이들에게 근대적 산업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근대화론과 한국학자 및 한국사회와의 만남을 주도했던 조직은 미국 해외공보처(USIA-U. S. Information Agency)였다. 미공보원의 임무는 “경제성장, 민주사회의 발전, 정치안정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임무에 가장 적합한 지식인으로 대학교수를 지목하였다. 공보원외에도 미국의 민간단체 특히 포드재단은 냉전 시대 미국 외교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학술교류 행사를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아시아재단, 하버드-엔칭연구소 등이 한국의 근대화연구 발전에 기여하였다(Brazinsky 2007, 281-289).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 역할은 한 대표적 지식인인 장준하의 민주화 담론은 저항적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는 함석헌, 리영희, 한완상 등 박정희 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지식인들의 공통된 특성이었다(문지영 2011). 이들은 박정희의 근대화 담론에 대항하여 『사상계』, 『씨올의 소리』 등 이른바 ‘지식인 잡지’를 통하거나 다양한 저술들—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한완상의 『민중과 지식인』 등—을 통해 민주화 담론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는 유신체제라는 폭압적 시대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나약한 지식인의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고, 그것은 1980년대 광주항쟁을 경험을 거치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만들었다.

1980년대 노동운동이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식인과 노동자의 결합이라는 이상적인 상을 그리면서 이른바 ‘학출’—학생출신의 노동자—을 만들어냈다(오하나 2010). 1980년대는 세계사적 과정과 맞물려 한국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시점이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패러다임의 경합도 존재하였다. 비록 한국 사회라는 좁은 틀에 한정되었지만, 1980년대는 한국 사회과학이 꽃피웠던 시점이었고, 그만큼 한국 사회 지식인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점이기도 하였다. 그와 함께 1987년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졌고, 한국 사회 지식인은 자신의 임무를 일정하게 완수하였다.⁶⁾

1990년대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내부적 문제와 세계사적으로 냉전의 종식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외부적 규정 속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화가 발생하였고, 지식인 역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이후 경제위기와 김대중정권의 등장, 국가에 의한 학문공동체의 규율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지식인과 그 운동의 양식은 급속히 쇠퇴하거나 적어도 분화된다(김원 2012). ‘지식인의 죽음’이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사회의 새로운

6) 1980년대는 70년대의 낭만적 운동 시기를 벗어나 이른바 ‘과학적’ 운동이 강조되었고, 다양한 이론적, 사상적 흐름의 유입과 그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논쟁, 특히 한국사회성격논쟁 등을 통해 어느 시기보다도 사회과학이 활발하였다. 그에 따라 지식인들의 논의와 참여 역시 풍성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 글의 논지에서 벗어나므로 다른 글을 통해 보기로 하자. 1980년대 한국의 사상과 지식인의 흐름에 대해서는 윤건차(2000)의 정리가 있으며, 그에 대한 많은 다른 연구들도 존재한다(조희연 2003).

과제와 지식/권력 관계의 변동 속에서 ‘지식인’이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한 탓일 수 있다. 과거와는 다른 형태와 내용을 지닌 지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거대 서사를 거부하고 근대의 이분법적 담론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담론이 확산되는 점, 신자유주의라는 흐름이 주도하는 지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지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나 한반도의 역사에서 지식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지식의 담지자로서 지식인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차별성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제3세계 식민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성은 어느 부문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또한 앞으로 볼 것처럼 현 시점에서 제3세계 지식인이 갖는 이중적 측면은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Ⅲ. 네트워크 권력과 집단지성의 탄생

과거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고와 표현의 방식 그리고 새로운 생활문화가 형성되었다. 말하는 담론 속에 말이 놓여지는 구술문화와 텍스트 속에 말이 놓여지는 문자문화는 분명히 다른 삶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말로 된 발화(spoken utterance)의 경우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에 의해서, 실제로 살아있는 타인에게, 항상 훨씬 더 많은 말을 실제 상황에서 특정한 때에 발해진다. 따라서 말해지는 말들은 언제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의 조절을 받게 된다. 반면에 텍스트 속에 말이 고립되는 씌여진 발화(written utterance)의 경우 텍스트 외부의 컨텍스트는 독자에게도 작자에게도 상실되어 있다(Ong 1996, 156-157). 따라서 구술문화의 경우 사고와 표현들이 집합적이고 전체적이거나 다변적이며, 논쟁적이고 감정이입적, 혹은 참여적 경향을 갖는 특징들이 있다(Ong 1996, 60-92; Lévi-Strauss 1996). 반면에 문자문화의 경우 폐쇄된 텍스트를 읽는 시각문화의 발달을 가져와 도식적이며, 개인주의적이다(Ong 1996, 196-204; Chartier & Cavallo 2006). 근대 개인주의 탄생과 종교개혁 등 근대성의 형성과

이러한 문자문화의 발달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성경의 대중적 보급에 따른 종교혁명을 가져왔고, 매체의 변화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에 수반한 독자의 변화—모여서 같이 읽는 것이 아니라 개인 주의적 묵독의 탄생—가 발생하고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IT 경제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활성화가 제기되면서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디지털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확산,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의 발전 등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과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혁명은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의 변화 그리고 기성권력이 독점하고 있던 자리에 ‘네트워크’로 표상되는 권력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정보혁명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식개념의 변화는 지식 그 자체라기보다는 지식을 정리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그리고 디지털 메타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배권력은 단순히 기술, 정보, 지식 자원을 보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분야의 ‘표준(standards)’을 장악하는 구조적 형태로 등장하였다(김상배 2010, 143). 이러한 지배권력은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언어나 화폐, 법률과 문화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표준을 제공하고 조정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네트워크 권력은 실제적인 권력, 즉 소유하는 권력이라기보다는 메타권력, 즉 권력에 대한 권력의 모습을 갖는다. 네트워크 권력은 사회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관계망 속에서 구성해 가는 비정형 권력이며, ‘권력과정’을 조작하고 ‘권력구조’를 배치하는 권력인 것이다(김상배 2010, 204-206). 네트워크 권력은 자신이 만들어 낸 규칙과 표준을 통해 더 나아가 그것들의 내면화를 통해 권력이 작동하게끔 만드는 권력이다.

이제 정보는 디지털화되면서 전달 및 접근의 측면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가진다. 또한 디지털화된 정보는 다른 정보요소들과 재조합되면서 하이퍼텍스트 형태를 띠게 된다. 정해진 시작과 끝이 없는 하이퍼텍스트는 마치 미로나 뿌리 줄기와 같이 얽혀 있어서 읽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복수의 텍스트 가능성이 열린다. 하이퍼텍스트(Hypertext)란 “열린 결말, 링크(link), 연결점(node), 네트워크, 웹(web), 경로(path) 등의 용어로 기술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텍스트성 속에서 다양한 경로들과 연쇄들 혹은 흔적들에 의해 결합된 단어들(혹은 이미지)의 일군의 블록들로 구성된 텍스트”를 말한다

(Landow 2009, 3). 새로운 지식의 형태로서 하이퍼텍스트의 경우 지식의 생산자에 해당하는 저자의 권위는 거의 사라진다. 지식의 생산과 해석을 둘러싸고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 다원적 권력으로 전환된다.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의 개방성, 다의성, 상호텍스트성, 탈중심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Landow 2009, 81-90). 그것은 데리다의 말처럼 텍스트를 분리된 단위로 독서한다거나, 기호 사용의 시스템과의 관계를 고려하기도 하며, 탄압적이고 억압적인 목소리에 대한 거부 등을 통해 능동적인 독자들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Derrida 2001). 하이퍼텍스트의 형성과 새로운 방식의 독자들의 탄생은 마치 문자문화 이전 구술문화가 갖는 특성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른바 2차적인 구술성의 시대이라고 할 수 있다(Ong 1996, 206). 문자문화가 탄생하면서 개인주의화된 텍스트읽기가 아니라 집단적인 읽기와 사고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지식의 소비에 있어서 민주화를 넘어서 지식생산과정에도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지식생산의 민주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지식의 발달 속도의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전의 시간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을 생산하고 배우고 전달하고 활용하는 지식의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역시 분명한 질적인 변환을 인식할 수 있다. 흔히들,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ect) 혹은 일반지성(general intellect) 등으로 칭하는 대중지성의 탄생이다. 지식의 형성과 움직임이 기존의 전문가 집단 혹은 특권층에 한정하여 작동되고 있지 않다. 가상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새로운 단계의 지식생산 메카니즘으로서 ‘집단지성’이 출현한다.

예전에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백과사전의 편집이 네티즌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등장한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좋은 예이다(배영자 2008; 김상배 2010). <위키피디아>는 인터넷시대의 백과전서를 대표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의 편집 작업에서는 누구든지 참여할 의사만 있다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용어에 대한 해설을 언제든지 수정해 갈 수 있다. 원래 <위키피디아>의 출발은 <누피디아Nupedia>라는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이었다. 전문가들이 자원해서 글을 쓰고 검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였다. 반면에 <위키피디아>는 모든 페이지에 존재하는 ‘편집’이라는 버

튼을 통해 독자들이 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혹은 삭제할 수 있다. 책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물은 독자와 필자의 차이가 매체에 의해 결정되지만, 〈위키피디아〉에서 이 두 역할은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키피디아〉는 성공적이었다. 〈위키피디아〉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낸 새로운 지식형성의 방식이다. 〈브래태니커사전〉이 근대적 방식의 백과사전의 전형이었다면, 〈위키피디아〉는 포스트모던이면서 동시에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가능하게 한 지식의 새로운 방식이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사회에서 대중들의 대표적인 의견표출방식으로 등장한 촛불집회는 인터넷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현상이다. 인터넷의 영향은 지식과 권력의 문제에서 역시 새롭게 작용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위키피디아〉와 같은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황우석사태’를 가져왔던 인터넷 포폴리즘과 인터넷 상에서의 다양한 논의들, 2002년 효순, 미선을 위한 촛불집회와 인터넷의 역할, 그리고 2008년 쇠고기 사태와 촛불집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등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인터넷이 단순히 대중을 동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이 형성되고 논박, 소멸 혹은 확산되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한 커뮤니케이션 학자는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 소셜 미디어 도구는 세계의 일부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한다(Shirky 2011, 56). 사회운동 과정에서 특정논객의 영향력이나 전통적 지식인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훨씬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집단지성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혹자는 이를 ‘이성적 균중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지성의 형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경향도 존재한다. 집단지성의 길을 통해 ‘함께 사유하고, 지적, 정신적 힘을 모으고, 상상력과 경험을 증대시키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협상하고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기호 체계, 그리고 사회조직 및 통제 형태들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다(Lévy 2002, 22-23). 또한 지식을 과거 엘리트들의 전유물에서 대중들에 의해 전유될 수 있도록 하고,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보기까지 한다.

또한 개인들의 유연성과 확장성, 생존성을 강점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접속하면서 일반인들은 엘리트집단으로부터 지식권력을 회수하기 시작하였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Castells 2008).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식주체들은 정치적 의미에서 ‘영리한 군중(smart mobs)’으로, 경제적 의미에서는 프로슈머(prosumer)로 기민하게 모습을 바꾸며 한계에 직면한 대의제민주주의와 생산성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Rheingold 2003). 인터넷 등 새로운 소통수단을 통한 영리한 군중이 행하는 사회적 의사소통은 권력과 대항권력이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다. 이미 1999년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 회의에 항의하는 ‘벌떼(swarming)’ 작전이 있었고, 2001년 ‘영리한 군중’은 필리핀에서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몰아내었다. 당시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중들의 동원과 통합이 주를 이루었기에 ‘엄지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우리는 2012년 중동지역에서 보여준 SNS 대중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통신기술이 가져온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과 군대가 등장하고 그러한 전쟁-네트워(netwars)-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Arquilla & Ronfeldt 2005).

하지만 반드시 낙관적 전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촛불시위의 경우 양적으로 다양한 지식이 생산되었지만 질 높은 지식이 생산되지 않았으며, 의견의 쓸림현상이나 집단적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다(조화순 외 2011, 91-96). 높은 접속성을 통해 활발한 의견의 개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숙의의 정도를 평가하는 다양성, 독립성, 분산화 등에서 한계를 보여준, ‘디지털 대중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집단지성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업, 다양성과 공통의 가치, 독립된 사고와 공동체적 특성이 적절히 결합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결합이 부적절한 경우 불협화음 혹은 순응주의가 등장하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일정한 그룹에 몰입하는 것은 집단지성이 아니라 군중심리가 된다(Leadbeater 2009, 64-65).

웹을 통한 집단지성의 탄생은 결국 민주주의의 확산, 불평등의 완화, 자유와 집단적 창의성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또한 그 역으로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집단지성의 탄생 가능성이 확장된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 디지털 정보처리 기술의 고도화 등에 따른 사이버 문화와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사회

적 공간의 형성 속에서 지식과 권력은 그 의미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를 맞고 있으며, 그것의 매개항 역할을 하는 지식인 역시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지식인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식인이라는 개념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지식인은 단순히 특정한 지식의 전문가 혹은 지식의 생산자 혹은 지식의 전달자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20세기 초반에 형성된 지식인이라는 개념이 지금과 같은 변화된 상황에서 유효하지도 않다. 지식 개념의 변화 속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그 전체적인 개념적 정의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IV. 새로운 지식인을 위하여

지식생산의 메카니즘은 곧 지식의 내용을 결정하며, 또한 지식/권력관계를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집단지성, 새로운 지식 생산 메카니즘의 형성 속에서 지식인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지식인이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변동되고 추구해야 할 가치 또한 달라진다. 집단지성의 시대에서 그 지식과 권력 관계의 특수성은 무엇보다도 지식이 대중에 의해 창조되면서 권력 역시 대중에 의해 전유될 가능성이 확장된다. 그리고 또한 지식인은 보편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전문적 지식인으로서의 특화된 역할을 주문받고 있다. 사르트르 이후 세대 지식인들은 대학이라는 틀 속에서 활동하였다. 푸코는 1968년 이후 이전의 보편적 지식인, 즉 보편성의 담지자 역할을 추구하는 고전적 지식인을 대체할 새로운 ‘전문적 지식인’을 제시하였다. 전문적 지식인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예를 들어 핵물리학자로서, 컴퓨터 전문가로서, 약리학자로서 자신의 영역에서 투쟁의 역할을 떠맡으면서 정치적 중요성이 증가해 간다(Foucault 1991, 165). 지식인은 “자신의 지식, 능력 그리고 진리에 대한 관계를 정치적 투쟁의 장에서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이해한다고 푸코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막바지에서 사르트르적 지식인 활동을 추구했던 부르디외는 지식과 권력의 결합체로서 대학에 대한 비판을 행하였다. 근대에서 지식의 보관 장소이자 확산의 장소로서 또한 지식인의 생산의 장소로서 인정된 대학에 대해서 부르디외의 시각은 싸늘하기까지 하다. 그는 대학이 “자본으로 기능하면서 각 영역에 보장된 특수한 이익을 산출하기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관여적인 특성들을 규정하기 위한 투쟁의 장소”라고 규정한다(Bourdieu 2005, 27). 또한 대학은 권력의 영역의 재생산하고 권력계의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역사 속에서 보여졌듯이 지식과 권력의 결합은 항상적이었다.

또한 중립적 혹은 진리의 문제라고 간주되었던 과학기술의 영역 역시 결코 그렇지 않다. 과학기술의 승리가 그 명제의 진리값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텍스트 해석과 ‘독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권력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과학지식사회학(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의 형성 속에서 과학적 지식이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Bowler & Morus 2005; 김환석 1999; Harding 2009). 결국 과학 지식 역시 사회과학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규범적 규제의 필요성을 갖는다. 과학에서 객체가 오랫동안 사실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그것은 역사적이고 지역적이고 물질적이고 네트워크적이다(Latour 2010, 271-272). 총이나 핵 등 과학기술의 산물이 중립적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에 내재된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항상 어떤 사람, 사회에 있는 어떤 그룹에게 권력을 부여한다. 하이퍼텍스트의 출현,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반드시 이로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하지만은 않는다. 새로운 정보 매체는 이점과 동시에 가능한 불이익을 수반한다(Landow 2009, 481). 네트워크가 주는 지리적 확장과 함께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의 위협 역시 동시에 증가한다.

이러한 지식의 생산을 둘러싼 충돌은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다. 권력의 변동은 지식의 변동을 수반하며, 그것의 선후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사회의 형성은 지식의 생산과 소비에 대중의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 지식이 다양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소비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서 시장주의에 경도된 지식가치가 전일화되는 경향이 촉발되면서 그에 대항하는 사회운동과 함께 새로운 지식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환경운동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존의 과학기술체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또 그러한 지식자체를 확산시킨다(조대엽 2004, 94-95). 대중을 위한 기술체계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혹은 중간기술운동(intermediate technology)과 같은 대안과학운동이나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제기하는 급진과학운동, 페미니스트 과학운동 등이 새로운 지식형성을 통한 사회운동이다.⁷⁾

그러한 의미에서 황우석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주었다.⁸⁾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까지. 황우석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의 지식이 권력과 결합하면서 만들어낸 효과이다. 황우석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다양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단체, 그리고 언론기관이 공조체계를 만들면서 움직였다. 이것이 ‘시민사회의 전문적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 시민사회운동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홍성태 2007)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과장된 해석을 경계하면서 그것은 ‘인터넷에서의 더욱 공개적이고 확대된 전문가 평가(open peer review)’에 의미를 두면서 전문가집단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김근배 2007, 299). 이러한 문제는 집단지성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영리한 군중’이나 ‘디지털 대중주의’냐의 문제는 대중의 합리성과 민주주의적 참여, 협업 등은 물론 전문적 지식인의 역할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7) 이외에도 유사한 흐름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사이버 아방가르드의 문화정치가 존재한다.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절히 결합해 표현의 도구로 쓰거나 그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는 예술 경향으로 20세기 전반기 사진 기술의 등장이 가져올 대량복제의 예술혁명을 주목한 벤야민, 그리고 미래파, 다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 예를 들어 문화간섭주의들(cultural interventionistes)들—상황설정을 통한 대중인터뷰, 선언문 낭독, 파이투척, 집단절도행위, 플래시몹, 디지털 사빠띠스파 등—은 반자본주의, 여성주의 가치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주류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이광석 2010, 154-175).

8) 황우석 사태는 정치권력과 결합한 한 과학자의 과도한 욕망과 그것이 빚어낸 ‘사기극’을 시민단체인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과 인터넷 사이트 브릭, 사이엔지, 디시인사이드 과학갤러리 그리고 방송권력의 공동보조를 통해 드러냈던 것이다(김근배 2007).

적 규범성의 문제와 전문적 영역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동시에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과학기술은 물론 다양한 분과 영역의 현실이다.

물론 예전의 보편적 지식인의 역할이 아직도 유효함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사이드는 지식인은 공동체의 열망, 보편적인 이상에 대해서 말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푸코가 말하는 대로 지식인이 전문가 혹은 ‘특수’ 지식인으로 머무르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식인은 “대중을 향해서 그리고 대중을 위해서 하나의 메시지, 관점, 태도, 철학이나 의견을 나타내거나 구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적 존재”라고 정의하고, 보편적 원칙에 기초하여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Said 2012, 25). 부르디외 역시 지식인의 역할은 권력에 대한 비판의 역할임을 강조하였고, 촛스키는 ‘권력에 맞선 이성’이라는 표현처럼 억압적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임을 강조하였다(Chomsky 2012; 2005).

한국 사회의 경우, 특히 8-90년대 대학을 거치면서 ‘학문’을 한 지식인의 경우 보편적 지식인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이 아직도 존재한다(장석만 외 2002). 하지만 다양한 대안적 지식공동체들은 기존의 지식/권력 관계, 대중과 지식인 관계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중과의 새로운 연대를 통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김원 2012). 결국은 집단지성의 형성이 기존의 지식/권력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식인의 새로운 역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식 자체의 변화 그리고 그를 통한 지식/권력 관계의 변화와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요구 등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식인의 새로운 상을 고민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는 이중적 사고를 진행시킬 수 밖에 없다. 현대의 지식인은 근대 학문체계의 성립과 엘리트/지식인 대당 개념의 형성 속에서 주어진 역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 사회는 서구 지식인이 갖는 문제의식에 덧붙여 식민지 경험이 주는 탈식민의 과제, 그리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과제들,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세계사적 과제 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보편적’ 지식인의 과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에 덧붙여 집단지성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다. 대중에 의한 지식/권력의 전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의 전문적 역할과 지식/권력의 접합을 위한 계기적 역할이 그것이다. 지식생산 메카니즘에 대중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지식 내용의 변화

를 주도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총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총 대신 무엇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더 나은 삶을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고, 또한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 생산 메카니즘의 변화는 지식과 권력과의 관계 설정에서 대중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 지식인의 역할이 요구되며, 그것은 동시에 공동체 삶의 윤리적 원칙의 확립과 윤리적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지식의 형성이라는 것과 맞물려 존재한다. 현재 자주 언급되는 기초학문의 위기 속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새로운 자리매김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학문적 표준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지식 공동체가 거기에 포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랜 동안 한국사회에서 사회과학은 외래학문의 수입과 그 권위에의 의존이 강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적 지식과 지식인 상의 새로운 정립은 한국적 사회과학의 확립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있다. 지식의 정체성과 지식인의 정체성 형성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참고문헌】

- 강수택. 2001.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서울: 삼인.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08.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서울: 후마니타스.
- 권영민. 1999.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 서울대출판부.
- 권인호. 2010. “한국 실학사상과 근현대철학에서 실용주의”, 『동서사상』. 8집.
- 김근배. 2007. 『황우석 사태와 대한민국 과학』. 서울: 역사비평.
- 김동춘. 2006.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서울: 길.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서울: 한울
- _____. 2006. 『네트워크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 김영민. 1999. 『지식인과 심층근대화』.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영수. 2006. 『건국의 정치. 여말 선초, 혁명과 문명전환』. 서울: 이학사.
- 김원. 2012. “민족-민중적 학문공동체의 변화와 대안적 지식공동체”, 『지식의 현장 담론의 풍경』. 서울: 한길사.
- 김진균·정근식. 1997. 『근대주체와 식민지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 김환석. 1999. “과학기술의 민주화란 무엇인가?”,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진보의 패러독스』. 서울: 당대.
- 노영기 외. 2004.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서울: 선인.
- 문지영. 2011. 『지배와 저항-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서울: 후마니타스.
- 박노자. 2005. 『우승열패의 신화』. 서울: 한겨레신문사.
- 박성래. 1998. “개화기의 과학수용”, 『근현대 한국사회의 과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박진희. 2010. “한국 과학자사회의 기원”, 『한국의 과학자사회』. 서울: 궁리.
- 방기중 편. 2005.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 체제 인식과 대응』. 서울: 해안.
- 배영자. 2008. “계몽주의 『백과전서』와 위키피디아”, 김상배 엮음. 『인터넷권력의 해부』. 서울: 한울.
- 오하나. 2010. 『학출, 80년대 공장으로 간 대학생들』. 서울: 이매진.
- 윤건차. 2000. 『현대 한국사상의 흐름』. 장화경 역. 서울: 당대.
- 윤평중. 2008. 『극단의 시대에 중심잡기: 지식인과 실천』. 서울: 생각의 나무.
- 윤해동. 2003. 『식민지 회색시대』. 서울: 역사비평사.
- 이광석. 2010. 『사이방가르드』. 서울: 안그래픽스.
- 이기준. 1983. 『한국경제학발달사』. 서울: 일조각.

- 이정희·최연식 편. 2009. 『현대정치사상과 한국적 수용』. 서울: 범문사.
-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2004.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서울: 소명출판.
- 임현진. 2005. 『전환기 한국의 정치와 사회. 지식, 권력, 운동』. 서울: 집문당.
- 장석만, 고미숙, 윤해동, 김동춘. 2002. 『인텔리겐차』. 서울: 푸른 역사.
- 장현근. 2012. 『성왕』. 서울: 민음사.
- 전상숙. 2004. 『일제시기 한국 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서울: 한울.
- 정용욱. 2004. “5.16쿠데타 이후 지식인의 분화와 재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서울: 선인.
- 정호훈. 2004. 『朝鮮後期政治思想研究』. 서울: 해안.
- 조화순, 민병운, 박희준, 최항섭. 2011. 『집단지성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
- 조희연 편. 2003. 『한국의 정치사회학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서울: 함께 읽는 책.
- 최재천·주일우 엮음. 2007. 『지식의 통섭』. 서울: 이음.
- 하영선, 김상배 엮음.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 홍석률. 1999. “1960년대 지성계의 동향—산업화와 근대화론의 대두와 지식인 사회의 변동”, 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서울: 백산서당.
- 홍성태. 2007. “황우석 사태의 역사—구조적 이해”, 『동향과 전망』, 69호.
- 홍태영. 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12. “푸코의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46집 2호.
- Arquilla, J. & Ronfeldt, J. 한세희 역. 2005. 『네트워크 전쟁』. 서울: 한울.
- Bol. P. K. 김영민 역. 2010.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 Bourdieu, P. 김정곤 외 역. 2005. 『호모아카데미쿠스』. 서울: 동문선.
- Bowler, P. & Morus, I. R. 김봉국 외 역. 2005. 『현대과학의 풍경』. 서울: 궁리.
- Brazinsky, G. 나종남 역. 2007.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서울: 책과 함께.
- Brooke, Ch. 이한우 역. 2005. 『수도원의 탄생』. 서울: 청년사.
- Burke, P. 박광식 역. 2006. 『지식』. 서울: 현실문화연구.
- Castells, M. 정병순 역. 2008. 『정체성권력』. 서울: 한울.
- Charle, Ch. 1990. *La naissance des intellectuels, 1880-1900*. Paris: Minuit.
- _____. 1994. *La République des universitaires 1870-1940*. Paris: Seuil.
- _____. 1996. *Les intellectuels en Europe au XIXe siècle*. Paris: Seuil.
- Chartier, R. & Cavallo, G. 이삼삼 역. 2006. 『읽는다는 것의 역사』. 서울: 한국출판마케

팅연구소.

- Chomsky, N. 강주현 역. 2005. 『지식인의 책무』. 서울: 황소걸음.
- _____. & Bricmont, J. 강주현 역. 2012. 『권력에 맞선 이성』. 서울: 청림출판.
- Coser, L. 신용하 역. 1990. 『사회사상사』. 서울: 일지사.
- Darnton, R. 주명철 역. 2003. 『책과 혁명』. 서울: 길.
- Debray, R. 강주현 역. 2001. 『지식인의 종말』. 서울: 예문.
- Derrida, J. 남수인 역. 2001. 『글쓰기와 차이』. 서울: 동문선.
- Dhombres, N. et J. 1989. *Science et savants en France. Naissance d'un nouveau pouvoirs (1793-1824)*. Paris: Payot.
- Foucault, M. 홍성민 역. 1991. 『권력과 지식』. 서울: 나남.
- _____. 이정우 역. 1992.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 _____. 오트르망 역. 2011.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 Gingras, Y. Keating, Limoges, C. 2000. *Du scribe au savant*. Paris: Puf.
- Gramsci, A. 이상훈 역. 1993. 『옥중수고』 I, II. 서울: 거름.
- Harding, S. 조주현 역. 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서울: 나남.
- Landow, G. P. 김익현 역. 2009. 『하이퍼텍스트 3.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Latour, B. 2010. “현실정치에서 물질치로: 혹은 어떻게 사물을 공공적인 것으로 만드는가?”, 『인간, 사물, 동맹』. 홍성욱 엮음. 서울: 이음.
- Leadbeater, Ch. 이순희 역. 2009.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21세기북스.
- Lévi-Strauss, C. 안정남 역. 1996. 『야생의 사고』. 서울: 한길사.
- Lévy, P. 권수경 역. 2002. 『집단지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 Le Goff, J. 최애리 역. 1998. 『중세의 지식인들』. 서울: 동문선.
- Loraux, N. et Miralles, C. 1998. *Figures de l'intellectuels en Grèce ancienne*. Paris: Belin.
- Lytard, J. -F. 이현복 역. 1993. 『지식인의 종언』. 서울: 문예출판사.
- Ong, Walter, J. 이기우 역. 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 Prochasson, Ch. 1993. *Les intellectuels, le socialisme et la guerre, 1900-1938*. Paris: Seuil.
- Renaut, Alain. 1993. *Sartre. Le dernier philosophe*. Paris: Grasset.
- Rheingold, H. 이운경 역. 2003. 『참여군중』. 서울: 황금가지.
- Roche, D. 1989. *Les Républicains des lettres* Paris: Fayard.

- Said, E. 최유준 역. 2012. 『지식인의 표상』. 서울: 마티.
- Sartre, J.-P. 박정태 역. 2007. 『지식인을 위한 변명』. 서울: 이학사.
- Shirky, C. 송연석 역. 2008. 『끌리고 쏘리고 들끓다』. 서울: 갤리온.
- Winock, M. 우무상 역. 2008. 『지식인의 세기』 I, II.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투고일: 2013.02.13. 심사일: 2013.04.04. 게재확정일: 2013.04.12

【ABSTRACT】

Knowledge and Power, *Intellectuals*.
for new image of *intellectuals* in the era of collective intellect

Hong, taiyoung | Korea National Defence University

In the recent periods of information revolution and network power, the death of intellectuals is declared. What are the images and roles of intellectuals which would be demanded newly? To respond this question, the philosophical and sociological discussions must be needed. This article examines changes of meanings of knowledge, those of 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power, and new significances and roles of intellectuals in the era of cyber and information. First, we take historical approach about these problems, and second, we examines these problems with the point of social sciences.

Key Words | Knowledge/Power, *Intellectuals*, collective intellect, Network power.